

# 애월 한담산책로 또 낙석 사고 ‘아찔’

### 제주시 추가 붕괴 가능성 확인위해 안전진단 계획 2016년과 2021년에도 낙석 사고 발생해 출입 통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아 제주 여행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애월 한담 산책로에서 또다시 낙석 사고가 발생해 일부 구간이 통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애월 한담 산책로에서는 지난 2016년과 2021년에도 낙석 사고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적이 있다.

10일 제주시와 애월읍사무소 등에 따르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 한담 산책로 전체 구간 중 애월한담공원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암석이 산책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떨어진 암석은 산책로 바로 옆에 있는 절벽 사면이 일부 붕괴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떨어진 암석은 높이 약 1m, 폭 3m, 부피는 2㎡ 정도이며 무게는 가볍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낙석 사고가 발생할 당시 산책로를 지나던 주민이나 관광객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제주시는 어린이날 제주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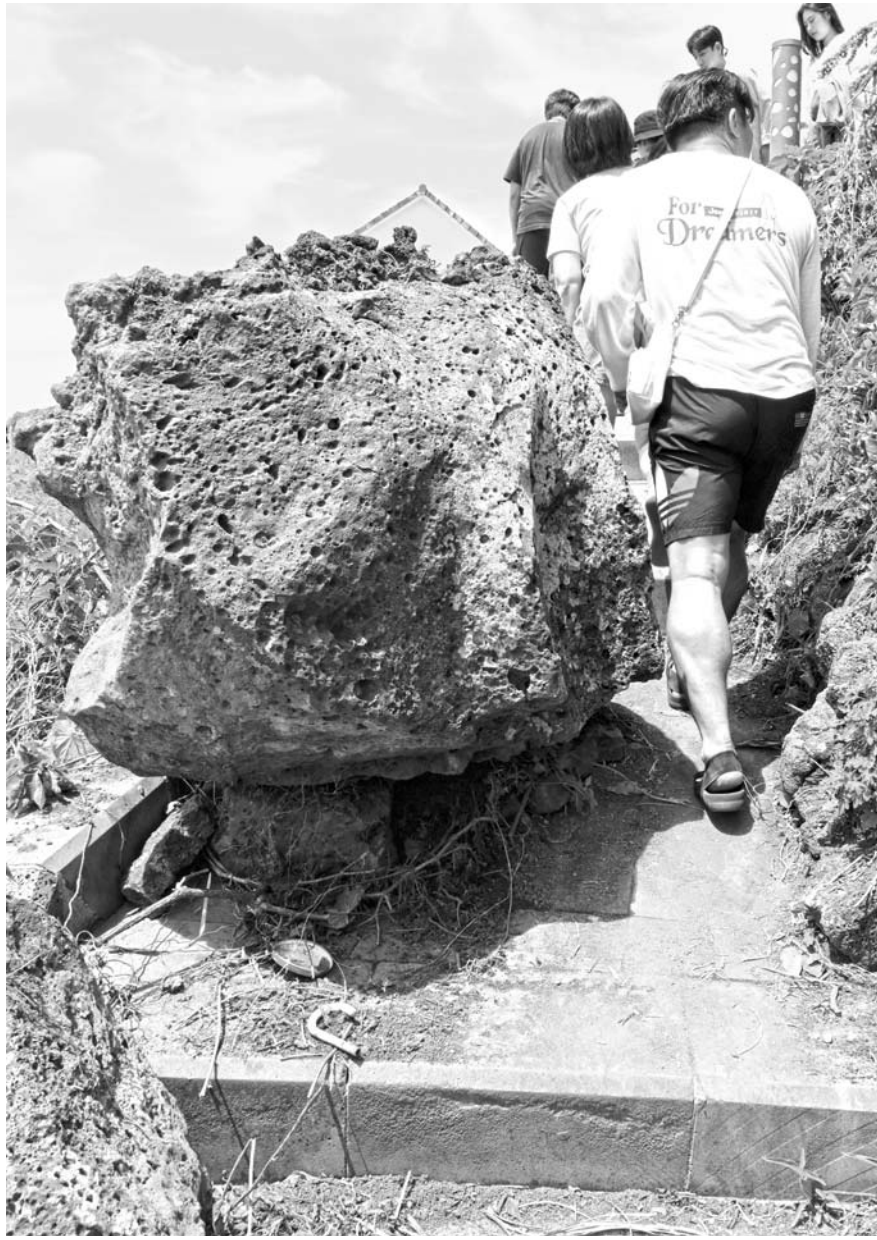
반이 약해져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5일 사흘간 제주지역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과 맞먹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제주시는 암석이 떨어진 구간에 일반인 통행을 막기 위해 임시 안전 펜스와 출입 통제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1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관광객들은 출입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낙석 주변을 마음대로 오갔다.

제주시는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현장을 찾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 구간에 낙석 방지 시설물을 설치할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곽금울레길’로 불리는 애월 한담 산책로는 제주도 애월항에서 곽과곶물해변까지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일컫는다. 총 길이는 1.2km다. 애월 한담 산책로에서 해안가 반대 방향으로는 높이 4~5m의 절벽이 길다랗게 형성돼



지난 5일 애월 한담산책로에 떨어진 폭 3m 크기의 암석. 강희만기자

있어 낙석 사고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16년과 2021년에는 애월 한담 산책로 일부 구간에서 절벽을 이루는 화산석인 ‘치소기암’이 떨어져 주변이 통제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등 3차 공판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날짜 변경 쟁점

검찰 “홍보효과 극대화 노력 허용되지 않는 불법 경선운동”  
-----  
변호인 “검찰 제시 자료엔 오 지사가 관여한 내용 없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 선거 캠프 측이 보육교직원들의 지지선언 날짜를 임의로 바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오 지사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지선언을 주도한 도내 모 어린이집 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오 지사 선거 캠프 측은 지난해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육교직원 3205명이 그 해 4월 17일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후보였던 오 지사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지지 선언이 이뤄진 날짜는 전날인 4월 16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4월 17일은 오 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로 등록한 날이다.

검찰은 A씨에게 “4월 17일이 오 지사가 경선 후보로 등록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이 후보 등록 날짜와 지지선언 날짜를 연관 지어 신문에 나선 것은 오 지사 측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지선언 날짜를 후보 등록 날짜에 맞추는 등 임의로 변경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경선 운동이라는 취지이다.

또 지지선언 참여 인원도 당시 보도자료에선 3205명으로 적시됐지만 A씨 등은 당시 ‘3024명 지지선언’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지선언을 했던 점도 쟁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캠프 측이 지지선언 보육교직원 참여 인원이 조정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오 지사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그 어디에도 오 지사가 지지선언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지지선언 자체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만큼, 오 지사 측이 지지선언을 유도 또는 주도했다는 주장이 왜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4차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이상민기자

## 백주대낮 음주운전자 6명 적발

### 자치경찰, 어제 1시간 동안 제주 시내서 불시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0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 시내에서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6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발된 운전자 6명 중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72%를 보였고, 나머지 5명은 면허 정지(혈

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였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자치경찰이 분석한 제주도 음주사고 발생통계에 따르면 낮 시간대(오전 10시~오후 6시) 음주운전 사고는 2020년 52건, 2021년 65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대도로운 위주의 단속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민속오일장,

주요 관광지 일대 등에서 불시 점검을 진행하며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장소를 변경하는 스폿형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에도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17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중 29.4%(5명)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를 넘기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12명이 면허정지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물질하던 80대 해녀 사망

### 제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80대 해녀가 숨졌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 25분쯤 제주시 한림읍 옹포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질하던 해녀 A씨가 의식을 잃은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동료 해녀들은 이날 함께 물질에 나선 A씨가 보이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 “한라산 무단 출입·흡연 하지 마세요”

### 도, 합동단속반 편성해 취약지역 32곳 순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탈진달래 및 철쭉 등 봄꽃 개화와 함께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 탐방로 이외 비탐방로 무단입산 ▷한라산 내 입산물 불법 굴취·채취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를 취급 행위 등이다.

도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4개 반 36명을 취약지역 32개소에 투입해 정기·기동·취약지 순찰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무인단속시스템(CCTV) 19개와 공원보호 단속용 드론 3개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산물 불법 굴취·채취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를 취급 행위 등이다. 강다혜기자

##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허귤,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2002-070)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사전예약 탕빛1호, 선경,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주문생산 선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모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 유라조생 1~3년생

### 하례조생 1~4년생

### 궁 천 1~4년생

###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카라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탐나는봉
- 황금향
- 천혜향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한라봉 2,3년생
유라실생	황금향 2년생
궁천 3,5년생	하례조생 4년생
레드향 2,3,5년생	레몬 4년생
천혜향 2년생	탕자묘목 2년생
하귤 4,5년생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설육묘 35년

##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 010-2699-2355